

‘나비, 황금박쥐를 만나다’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봄의 전령 나비 날리기 개장식 행사 성료… 개막 기념 조성모, 소찬휘 축하 공연으로 축제 활기

전남 함평군이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가 성대한 막을 올리며 5월 6일까지 12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함평군은 25일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가 축제 첫날인 이날 오전 엑스포공원 나비곤충생태관에서 개장 기념 나비날리기 행사로 축제의 서막을 알렸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명예문화축제로 지정된 ‘제27회 나비대축제’는 ‘나비, 황금박쥐를 만나다’를 주제로 이날부터 5월 6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나비대축제에서는 호랑나비, 배추흰나비 등 17종 약 20만 마리의 살아 있는 나비와 메리골드 등 30종 50만 본의 봄꽃이 어우러진 장관을 선보이며 관광객을 맞이

한다. 자연 속에서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최근 급감 상승으로 주목을 받는 함평의 대표 관광 콘텐츠인 ‘황금박쥐’ 캐릭터 ‘황박이’가 함께 관광객을 맞이하며 축제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황금박쥐상은 함평엑스포공원 추억공작소에 있는 황금박쥐전시관에서 볼 수 있다.

이날 오후 7시에는 나비대축제 개막식이 열려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가운데 축제의 찬란한 시작을 선포한다. 개막 축하 공연에는 가수 조성모와 소찬휘가 화려한 공연을 선보이며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상의 함평군은 “함평나비대축제는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며 “전국 관광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광양 백운산 치유의 숲, ‘힐링 명소’로 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 연중 운영… 연 1만 5천여 명 이용

광양시는 ‘백운산 치유의 숲’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연간 1만 5천여 명이 이용하는 대표 산림복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백운산 치유의 숲’은 광양 백운산의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치유의 숲 센터, 치유숲길, 치유정원, 치유마당, 풍욕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용객의 건강 상태와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대상 ‘한글썸 두글썸’, 직장인 대상 ‘여우野 놀자’, 장애인·어르신 대상 ‘썸썸썸’, 가족 대상 ‘다들다들’ 등이 있으며, 갯년기 여성, 암 경험자, 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이다.

각 프로그램은 이완체조, 맨발 걷기, 숲속 요가, 족욕, 해먹 명상, 아로마테라피 등 산림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으로 구성돼, 이용객의 신체 활력 회복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백운산 치유의 숲’은 건강 상태와 계절에 따라 선택 가능한 7개 노선, 총연장 10.3km의 치유숲길 운영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힐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백운산 치유의 숲’ 운영 시간은 하루 2회(오전 10시~12시, 오후 2시 30분~4시 30분)이며, 동절기에는 실내 중심 프로그램으로 조정된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및 대체공휴일이다.

체험 인원은 회당 15명 내외이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개인 기준 5,000원, 단체(15인 이상)는 4,000원이며, 광양시민은 50% 할인,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정·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심현우 광양시 휴양림과장은 “백운산 치유의 숲은 단순한 숲길이 아니라, 전문화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힐링할 수 있는 복지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이 산림 자원을 통해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보성다향대축제 속 또 하나의 즐거움, 5월 2일부터 5일까지 축하공연

보성군민의 날 축하공연&워터페스타, 보성데일리콘서트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대한민국 대표 차문화축제,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가 오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가운데,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특별한 무대가 찾아온다.

5월 2일에는 제48회 보성군민의 날이 개최되어 ‘세대가 만나고 마음이 머무는 축제의 장’이라는 주제로 세대를 아우르고, 힘이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 날 진행되는 워터페스타에는 하하&스킵, 효린, 호미들, XLOV가 출연해 5월의 무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공연을 선보이며, 오후에는 축하공연으로 나태주,

박서진, 미스김이 출연해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로 흥을 돋울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국 최대 규모 전 군민 오징어게임,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 아이도 웃고, 어른도 쉬는 야외 놀이공원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다.

올해 ‘보성데일리콘서트’는 기존 야외 공연을 넘어 ‘디너파티’ 콘셉트를 새롭게 도입해 더욱 특별한 공간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공연장 내 일부 구간에는 테이블이 설



치돼 관람객이 자유롭게 지역 음식을 배달시켜 식사를 즐기며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오롯이 ‘식사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봄밤을 선사할 계획이다.

공연은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3일

간 진행된다. 5월 3일에는 인기 트로트 가수 장민호, 홍자가 무대에 올라 축제의 포문을 연다.

5월 4일에는 트로트 여왕 송가인, 감성 발라드 정다경, 감미로운 음식의 송하예가 관객과 만난다.

보성/김윤기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본격 추진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홍보와 가입 독려에 나섰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까지 보장하는 국내 최초의 종합형 정책보험으로, 농가의 수입이 기준 이하로

고흥군, ‘농업수입안정보험’정책 홍보와 가입 독려 나서

수확량 감소는 물론 가격 하락까지 보장하는 농작물종합보험 출시

떨어졌을 경우 차액을 보험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주로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피해를 보장했다면,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 감소와 시장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 리스크를 반영

해, 농가의 기존 수입의 최대 85%까지 보장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고흥군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장 품목은 마늘, 양파, 가을감자, 고구마, 콩, 옥수수, 양배추, 포도, 보리 등 9개 작목이다.

보험 가입은 NH농협손해보험, 지역 농축협, 품목농협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90%를 지원해 농가의 자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다만, 기존 농작물재해보험과 중복 보장은 불가하므로, 두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해야 하며, 보험 가입 시 보장 수준에 따라 보험료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고흥/박도일 기자

무안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맛플 무안몰’이 본격적인 핫양파 출하 시기를 맞아 할인 기획전을 시작으로, 김 특가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먼저,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되는 ‘햇양파 할인전’에서는 맛과 품질이 뛰어난 무안 햇양파를 3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무안군 맛플무안몰, 햇양파 할인전 시작

1인당 2매의 할인 쿠폰이 제공돼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선한 햇양파를 구매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5월 2일부터 15일까지는 ‘김(感)동 기획전’이 열린다.

김과 해조류 전 품목을 대상으로 20% 할인 쿠폰이 1인당 2매 제공되며, 실속 있는 선물용 품목이 주를 이루어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또한, 매월 둘째 주 평일에 열리는 특가 행사 ‘오!맛데이’는 5월 12일

부터 16일까지 운영되며, 표고버섯, 군고구마, 양파즙, 떡볶이 떡 등 4개 품목에 대해 40% 특별할인이 적용된다. 아울러, 지난 1년간 누적 구매 실적이 높은 회원 100명을 선정해 방울토마토 2kg을 증정하는 ‘구매왕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여 꾸준히 쇼핑몰을 이용해 온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무안군 제공

곡성군,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지원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250명 대상 최대 50만원 지급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지역 내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오는 28일부터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연간 카드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군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카드 결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매년 지

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남도의 결제 방법 중 카드 이용은 2020년 46%에서 2022년 47.7%로 증가 추세다.

지원 대상은 2024년부터 사업공고일 현재까지 곡성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2024년 카드 매출액의 0.5%를 환급받는 방식이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3주간이며,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곡성/이정수 기자

